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김혜정 베로니카 | 한국틴스타 프로그램 총괄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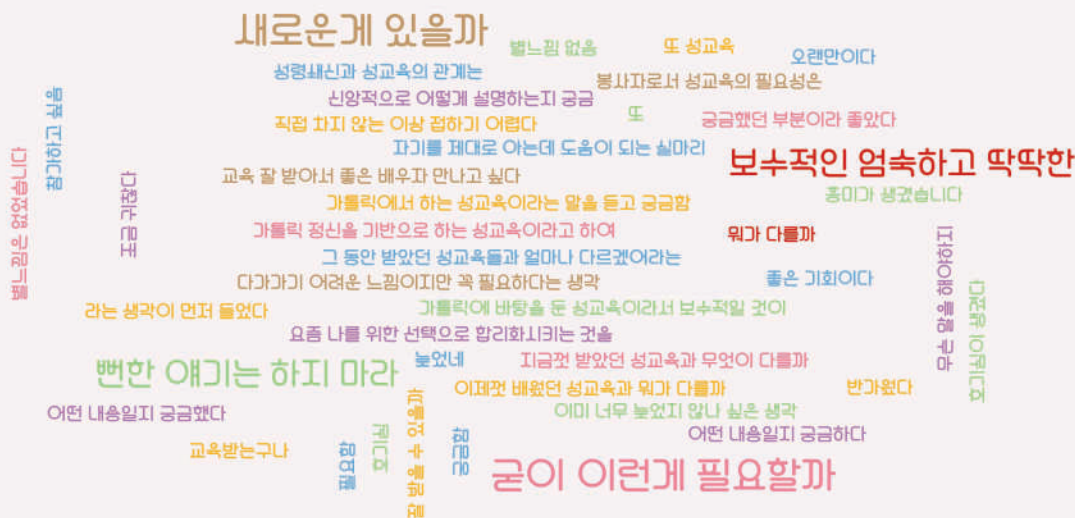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앞날을 계획하기 어렵던 시기에 한 청년이 틴스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기도모임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틴스타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참이어서, 온라인 모임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틴스타도, 청년들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온라인 수업으로 과연 참가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적절한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과 우려의 목소리는 청년들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의 방에 첫 노크를 하던 날 교사들은 ‘성교육을 제안받았을 때의 느낌과 생각’을 질문으로 던지며 그들에게서 나오는 무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틴스타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틴스타 프로그램은

-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하느님 계획안에 인간 사랑’에 대한 교리 교육인 <몸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성교육**입니다.
 - 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와 연령에 따라 **사람과 인격적 만남**을 합니다.
 - 성의 다섯 가지 차원(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성적, 영성적)과 그것의 상호작용을 배우고 나누며 **자신의 성을 총체적으로 통합**해 갑니다.
 -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의 신체적인 차원에서의 몸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받으며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지와 관련해 **삶**을 나눕니다.
- 그리고 특히 청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성인을 위한 틴스타(총체적인 성)’는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 안에서 자기 자신의 성적 특성과 생식력을 자각하고, 자기 결정 능력을 갖추으로써 상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 성교육을 제안 받았을 때 느낌과 생각

동반하며 함께 성장하는 틴스타 교사

여성과 남성 그리고 부부와 부모로서 성을 인간의 인격적인 특성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성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움을 주며 동반하는 자리에 바로 틴스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모임에는 6명의 남녀 교사(사제 3, 여교사 3)가 참여했습니다. 교사들은 남녀 참가자의 정서적 배려와 주제에 따른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와 작은 모둠 토론을 적절하게 교수법에 적용하였습니다. 게다가 틴스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식력 자각을 위해 개별 SNS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12주 동안 6명의 교사들은 24번 이상을 만났습니다.(물론 온라인으로^^) 교안 연구와 공유, 서로 보완해주는 파트너십은 일치의 친구가 주는 기쁨을 선물로 남겼습니다. 결국 틴스타 교사들에게도 성숙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이상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함께 그 믿음을 나누며 선재한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해 흐르게 할 때 충만한 친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잖아...”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저희의 태도에서 청년들이 발견했던 것은 아마도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정성스러운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선물로 받은 롤링 페이퍼 속에서 긴장감이나 경계심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용기 내보고 힘을 받게 됩니다.

한국틴스타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성인을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의 주제를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글을 엮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놓지 마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농부가 씨를 심는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씨앗이 잘 심어졌으니 돌보고 키워 수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힘써주세요. 얼른 공중파 진출해야죠. ㅋㅋㅋㅋ

신명들과의 만남과 함께 한 12주 동안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귀중한 주일에 교육을 위하여
준비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매우 소중한 말씀과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생명을 의뢰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종이입니다. 사도 필로와 신명님들께,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고백한 믿고 교육
신명님들께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는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강의해주셨고, 마음에 씨앗이 잘 심어졌으니 돌보고 키워 수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놓지 마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힘써주세요. 얼른 공중파 진출해야죠. ㅋㅋㅋㅋ

살면서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 수 있을까요?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12주 동안 일관 수업을 만들어주시는 신명님과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12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수업에 참여하는 주일마다 배운 것들이 정말로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믿고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믿고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믿고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대량도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수월할 것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점이 결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서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점이 결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서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 수 있을까요? 함께해주신 덕분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